

장영석, 3루 물음표 지운다

KIA 초반 불안정 했던 야수진
매일 경쟁 통해 빈틈 채워
황대인·유민상·김호령 합격점

전천후 수비수 나주환 부상에
맷 감독, 2군서 장영석 콜업
상위권 진입 위한 3루 시험
'깜짝 활약' 새 다크호스로

KIA 타이거즈가 야수진의 남은 퍼즐 한 조각도 맞출까?

KIA는 롯데자이언츠와의 홈경기가 열린 4일 내야수 장영석을 콜업했다. 장영석은 개막 후 7경기에서 0.150의 타율에 그쳤고,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노출하면서 지난 5월 16일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퓨처리그에서 재정비 시간을 가진 장영석은 윌리엄스 감독의 마지막 퍼즐로 다시 테스트를 받게 됐다.

안정된 선발진을 앞세운 '윌리엄스호'는 시즌 초반 순위 싸움의 복병으로 급부상했다.

필승조가 여전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대하지 않던 한방도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KIA는 4위권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 물음표가 남아있던 자리들이 하나씩 채워져 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시즌을 시작하면서 KIA의 고민은 중견수와 1·3루였다.

지난해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던 이창진이 캠프에서 부상으로 중도 귀국했고, 김호령은 손가락 부상으로 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원준이 외야로 이동했다.

캠프 연습경기에서부터 줄곧 중견수로 뛰었지만 아무래도 최원준의 '경험'이 변수였다.

최원준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시즌을 준비했지만 실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수비에서 실수가 이어지면서 공격에서도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베테랑 김주찬으로 채웠던 1루도 무주공산이었다.

허벅지가 좋지 않았던 김주찬이 빠른 회복세로 캠프에 참가해 후배들과 호흡을 맞췄지만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다. 김주찬이 퓨처리그에서 긴 호흡으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유민상이 먼저 1루 선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시즌 보여줬던 유민상의 알토란 같은 타격은 아니었다.

3루도 고민이었다.

지난해 임시 3루수로 깜짝 활약을 해줬던 박찬호가 유격수로 이동해 김선빈과 '막강 키스톤 콤비'를 구성했지만 정작 3루가 비었다. 트레이드 카드로 장영석을 투입했지만 시즌 초반 장영석의 움직임이 없었다.

결국 1·3루는 변동 많은 자리가 됐고, 매일 새로운 조합으로 라인업이 꾸려졌다.

고민 많던 자리가 '경쟁'으로 달라졌다.

부상에서 벗어난 김호령이 퓨처리그에서 연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일 마침내 1군에 등장했다.

풀업과 함께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김호령은 첫 타석에서 초구에 홈런을 터트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명불허전'의 수비까지 이네 외야 중원은 KIA의 감정이 됐다.

1루는 황대인발 경쟁으로 뜨거워졌다.

5월 16일 윌리엄스 감독의 부름을 받은 황대인은 대타로 나와 2루타로 시즌 첫 안타를 신고했고, 첫 선발출장이었던 19일 경기에서는 홈런포까지 가동하면서 1루 싸움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유민상의 방망이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LG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유민상이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면서 2일에는 4안타 5타점의 맹활약을 하면서 활짝 웃었다.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 남은 퍼즐 한 조각, 바로 3루다.

전천후 수비수로 3루까지 처리해줬던 나주환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윌리엄스 감독은 다시 장영석을 불러들였다.

장영석까지 달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KIA는 빈틈을 채운 채 안정적으로 라인업을 꾸릴 수 있게 된다.

돌아온 장영석이 '깜짝 활약'으로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12일 오후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렸다. 6회말 1사 2루 상황 한화 호영이 선제 1타점 2루타를 날리고 3루까지 내달렸지만 KIA 3루수 장영석의 태그에 걸려 아웃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백용환 "인터뷰 할 때가 시합보다 더 땀나요"

데아웃 T 특특

▲어렵게 가야죠 =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3일 취재진과 만나 전상현을 호평했다. 좋은 제구를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공격적인 피칭에 대해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 "전상현을 승부한다면 어떻게 공략하겠냐"는 질문에 바로 "기습번트를 대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전상현은 "정말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웃은 뒤 "(감독님과 승부하게 된다면) 어렵게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상현은 "감독님은 메이저리그에서 300홈런을 넘겨 친 강타자"라며 "어떻게 코너, 코너로 승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는 5선발이어서 = KIA '에이스' 양현종은 지난 3일 롯데전을 통해 통산 5번째 140승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선발 전원 안타라는 화끈한 타선 지원 속에 6이닝 2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한 양현종은 이날 승리로 송진우(210승), 정민철(161승), 이강철(152승), 선동열(146승)에 이어 5번째 140승 투수가 됐다.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뽑아줘서 공격적으로 승부했던 것 같다. (백)용환의 리드대로 했다"며 동료들에게 승리의 공

을 돌린 양현종. 선발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저는 5선발이어서"라고 입을 열어 사람들을 웃겼다. 올 시즌 KIA 선발진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에이스' 양현종은 팀 내에서 '5선발'이라는 농담을 듣고 있다. 양현종은 "(이)민우랑 기영이 페이스도 좋고, 브룩스와 가봉도 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다"며 "선발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민우, 기영이도 더 발전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시합 때보다 땀을 더 흘려 = 포수 백용환은 올해로 13년 차 베테랑이다. 올 시즌 장점인 타격에서는 물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안방을 지키고 있는 백용환. 하지만 인터뷰 실력을 늘리지 않았다. 팀 내에서도 인터뷰를 가장 어려워하는 선수로 소문이 자자한 백용환은 4일 경기 전에 방송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가 끝난 뒤 백용환은 "시합 때 보다 땀을 더 흘렸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양현종과 호흡을 맞췄던 전날 경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카운트 잡는 변화구에 안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하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현영이 행하고 잘 맞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당쇠 박준표·나주환 '이달의 감독상'

투타에서 KIA 타이거즈의 '마당쇠' 역할을 해준 박준표와 나주환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투수 박준표와 내야수 나주환은 지난 3일 광주 롯데전에 앞서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5월 '이달의 감독상'에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

5월 10경기에 나온 박준표는 11이닝 동안 12개의 탈삼진과 평균자책점 0.823홀드를 기록했다. 박준표는 변화무쌍한 심커와 커브로 상대를 유인하며 팀 승리를 지켰다.

나주환은 5월 16경기에 나와 43타수 8안타, 타율 0.200과 4타점 5득점을 기록했다. 전천후 수비수로 역할하며 5월 20일 롯데전에서는 삼중살을 만들어내는 등 좋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이달의 감독상'은 선수단 팀워크와 팬 관심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15시즌부터 시상하고 있으며, 매달 팀을 위해 공헌한 선수(투수·야수 각 1명)를 직접 감독이 선정한다. 상금은 50만원이다.

외야수 나지완과 투수 이민우, 전상현도 월간 MVP로 시상대에 섰다.

나지완은 구단 후원업체인 임팩트 명품백화점이 시상하는 5월 MVP로 선정, 3월 시상식에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나지완은 5월 23경기에 나와



나주환

박준표

81타수 27안타(4홈런) 17타점, 12득점 타율 0.333 OPS0.958의 빼어난 활약을 했다.

특히 지난 달 28일 수원

KT전에서는 개인 통산 208번째 홈런을 터트리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이민우와 전상현은 각각 밝은안과 21병원과 뉴티스마트피부가가 시상하는 5월 월간 MVP에 선정돼 4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민우는 5월 5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와 30.2이닝동안 패없이 3승을 거두며 탈삼진 23개, 평균자책점 3.23을 기록했다.

시상금 100만원을 받은 이민우는 시상금 중 50만원을 어려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기부했다.

10경기에 나온 전상현은 12이닝 동안 탈삼진 15개를 속아내며 평균자책점 0의 완벽투로 1승을 거뒀다. 전상현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연패 끊은 광주, 내친김에 첫 승 가자

K리그1 7일 수원 원정

엄원상·펠리페 빠른 연계플레이

매서워진 창, 자신감 회복

연패 끊은 광주FC가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광주가 7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2020 하나원큐 K리그1 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4라운드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연패를 끊으며 6월 반전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1-1 무승부로 4경기 만에 승점을 더한 광주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전을 치른 엄원상이 특급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광주의 시즌 첫 골에 성공하며, 첫 승점을 만들어냈다. 아쉬운 자책골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많은 소득이 있었다.

앞서 높은 K리그1 무대에서 고전했던 광주는 '우승후보' 울산에 상대로 밀리지 않은 승부를 펼치며 자신감을 얻었다.

고민이었던 화력에도 불이 붙었다.

엄원상이 측면을 파고들면서 상대를 흔들었고, 펠리페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현신적인 연계플레이를 하는 등 점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소실점으로 광주의 우승을 이끈 수비진의 혼신을 다한 플레이도 광주의 힘이다.

자책골은 아쉬웠지만 수비진은 온몸으로 울산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면서 추가 실점을 막아내며 귀한 승점을 지켰다. 골키퍼 이진형은 6개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울산전 경기수훈선수(MOM)로 선정되기도 했다. K리그1 적응을 끝낸 광주는 더 매서워진 창으로 승리를 노리며 수원으로 간다.

울산에 이어 만나게 된 수원도 전통의 강호다. 염기훈, 홍철, 김민우, 타गत 등 걸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도 광주가 2승 5무 7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승세의 광주와 달리 최근 수원 상황은 좋지 않다. 수원은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은 기록했지만 앞선 라운드에서 승격팀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0-0 무승부에 만족했다. 4경기에서 3득점을 했고, 4실점을 하면서 득실차에서 -1을 기록하고 있다.

앞선 울산전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광주는 분



4라운드 울산전 무승부로 자신감을 되찾은 광주FC가 7일 수원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2020시즌 첫승을 노린다. 사진은 울산전에서 펠리페가 드리블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위기를 이어 첫 승리까지 내달리겠다는 각오다. 박진섭 감독은 "경기를 치르며 1부리그에 맞는 광주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다. 선수들의 사기도

절정에 올라있는 상태"라며 "쉽지 않은 원정경기가 될 테지만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